



2012년 경기 회복 불투명

채원영 연구원

■ 2012년 1/4분기 우리 경제는 유럽재정위기의 여파에서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으며, 이 가운데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소비 기여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.

- 2012년 1/4분기 GDP 성장률은 잠정치 기준으로 전기대비 0.9%(전년동기대비 2.8%¹⁾) 증가하였는데 설비투자, 민간소비, 재화와 서비스 수출의 전기대비 성장 기여도가 각각 1.0%p, 0.5%p, 1.9%p로 2011년 4/4분기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감소 폭 이상으로 증가하였음.
-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정부지출에 의한 성장 기여도는 전년동기대비 0.7%p로 나타났는데 최근 2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임.
 - 정부는 2012년 1분기 중 연간 예산 276.8조 원의 32.3%를 조기집행 하였음.

■ 그러나 올해 무역수지 감소, 내수둔화가 전망되고 하반기에는 정부소비도 둔화될 것으로 보여 올해 경기 회복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임.

- 2012년 1/4분기 무역수지는 전년동기 70.4억 달러 흑자에 비해 크게 감소한 16.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고 2012년 1월, 3월, 4월 수출 증가율이 감소²⁾하여, 올해 무역수지흑자는 전년 308억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.
- 3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.4% 감소(전년동월대비 0.2% 증가)하였으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상승세도 멈췄음.
 - 전월대비 내수출하(-3.7%), 건설수주(-3.5%), 수출입물가비율(-0.7%)이 하락한 반면 원자재 가격지수는 소폭 상승(+0.4%)하였음.
-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2/4분기 이후 정부소비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.

(한국은행 보도자료 외)

1) 2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임.

2) 2010년 이후 처음임.